

‘남원 춘향제’ 흥 잔치 시작됐다

오늘부터 7일간 광한루 일원 등서
‘소리’테마 100여 가지 공연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등 다채
먹거리 공간, 요천 하단까지 확장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축제이자 ‘K컬처의 중심’인 남원 춘향제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95회를 맞이한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 원 일원과 요천변 등지에서 흥겨운 잔치를 연다.
춘향제는 100주년을 향해서는 분기점을 맞아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표방하며 매년 주제를 설정,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선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인 남원의 특색을 살려 ‘한국의 소리’와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테마로 100여가지 공연을 구성했다.
‘한국의 소리’에서는 전통국악과 예술단체 공연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진다.
‘세계의 소리’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융합의 소리’를 통해서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 퓨전 국악과 국악클럽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0인의 남원시민합창단’이 개·폐막식 공연에 참여한다. 23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발광난장-대동길놀이’는 4일간(5월 3-6일)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춘향제의 대동길놀이 모습.

지난해 세계로 확장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춘향제의 꽃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도 계속된다. 올해는 전야제 성격으로 축제 첫날 서막을 연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유채꽃밭은 승사교 아래 둔지 유휴지 3ha를 활용해 조성, 춘향제 기간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운영된다.
또 품바 공연 무대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며,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차박존을 제공할 예정이다.
먹거리 공간도 한층 더 확장된다. 기존의 경의

상가, 사람의 광장 앞 요천둔지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요천 하단까지 확장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4·19혁명과 같은 민족의 격변기 때조차 개최됐던 춘향제가 올해로 95번째를 맞이한다”라며 “100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으로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많이 방문해주셔서 춘향의 가치와 정신이 담긴 다양한 징표를 남원에서 발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지정

창업기업 성장 종합 지원

남원시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2025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신규 지정됐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 경영·기술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연구원은 노암농공단지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에 10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마련, 다음 달 2일에 개소해 예비창업가

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가가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업을 안정화 시킨 후에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중국에는 남원에 정착하는 기업을 만드는 ‘창업·성장·정착’ 형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영철 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유망 창업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고창 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속도’

실시설계 용역 진척율 60%...내년 완공 목표

고창군이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심덕섭 군수와 김영식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고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이 설계용역은 지난해 9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가 선정된 뒤 추진 중인 용역으로 현재 60%의 진척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 기관인 ㈜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는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참석자들과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고창군 심원면 만들리에 조성 중인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는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6년 준공이 목표다.
고창갯벌의 보전과 모니터링 등 효율적 관리를 맡고 동시에 생태관광 거점공간으로 활용돼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조감도.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뛰어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역센터를 고창갯벌 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 야간진료 서비스

정읍아산병원과 운영 협약

야간·공휴일도 응급실 연계 진료

정읍시가 야간진료 서비스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정읍아산병원과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는 지난 28일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소아 야간진료 서비스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위해 정읍아산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손희경 보건소장을 비롯해 정읍아산병원 김잔디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아청소년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읍아산병원 소아외래진료센터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들을 위한 밀착형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오후 8시 이후 야간과 공휴일에도 응급실과 연계한 진료 시스템은 물론 소아과 전문의 당직 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정읍시와 정읍아산병원의 ‘소아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 협약식’에서 이학수(오른쪽) 시장과 김잔디 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김잔디 정읍아산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소아전문 진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밤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들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위기 대응 의료망 구축의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충렬사’ 향토문화유산 지정

이순신 장군 기리는 사당...심의위 “역사·학술·장소적 가치 높아”

정읍시가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덕을 기린 충렬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마을 우물 5곳을 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으로 재임 당시 배편 선정을 기리고자 광복 이후 지역주민과 학생 등 각계의 성금을 모아 1963년 성황산 서쪽 기슭에 지어진 사당이다.
심의위원회는 충렬사의 역사적·학술적·장소적 가치가 뛰어나며 문화유산으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해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곳은 조소마을 우물, 현암마을 우물, 상학마을 우물, 표현마을 우물, 봉암마을 우물 등 총 5개소다.
특히 조소마을 우물은 전봉준 장군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간직한 우물로

주목받고 있다.
현암마을 우물은 팔각형 돌난간으로 독특한 보존 형태를 지니고 있고, 표현마을 우물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쓰던 방식에서 마을명이 유래돼 역사적 의미가 크다.
상학마을 우물은 수질 관리가 뛰어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하며 봉암마을 우물은 두레박을 걸던 전통적 방식을 보존하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이미 정해마을 우물 등 4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우물까지 더해 총 9곳의 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충렬사와 우물 등 지역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